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 연구

이진로*

I. 서론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인가? 1987년 이후 정치의 민주화는 언론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 했다. 정치의 민주화가 자유로운 정치, 정당 활동을 통해 민의를 반영한 대표자의 선출이었듯이 언론의 민주화는 자유로운 언론, 표현 활동을 통해 여론을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였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 직선제라는 측면에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출신이 아닌 문민정부를 열었다는 점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의 여야 수평교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비교적 무명의 정치인에서 출발하여 국민경선제를 치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거친 점에서 각각 정치의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언론의 민주화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그동안 제한된 신문의 발행과 방송사 설립 활동이 허용되면서 언론의 양적 증가가 현저히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언론의 정치 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일부 메이저 신문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일부 메이저 신문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강화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정부와 언론은 팽팽한 역학구도를 형성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를 둘러싸고 찬성 입장을 보인 주요 신문과 반대 입장을 보인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대립적인 논조를 전개

* 영산대

했고, 후기에는 정부 부처 기사실 축소 운행으로 인해 언론 활동을 형식적 측면에서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 체결 이후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을 둘러싸고 시민의 저항이 높아지고, 이에 대해 정부가 불안감을 느끼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싼 언론 활동에 대한 규제와 처벌 시도를 비롯해 공영 미디어와 공적 기반을 갖고 있어서 사장 선임 등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경영진이 비정상적으로 교체됐고, 정권 말기에 ‘불법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듯이 정부는 특히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빈번하게 취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가 시민에게 정치와 관련된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정부와 사회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등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이르러 대통령의 측근과 고위 정치인, 판료 등이 부패와 위법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상의 뿌리 역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자를 부정부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을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주의에서 독립했고,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을 지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의 배경에는 영국이 절대주의 왕정으로부터 민주적인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언론 자유의 역사가 있다. 영국 절대주의 왕권은 공화주의자의 주장을 담은 출판물을 검열하고, 출판의 허가제를 실시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탄압했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더불어 투쟁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확보됐고, 민주주의도 진전됐는데, 이러한 경험은 미국 언론 자유의 기저를 이루기 때

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과 역사가 영국과 다르듯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사상도 일부 상이한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팽창과정에서 형성된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는 폭넓은 부정부패의 비판을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가치로 작용했다. 미국 시민의 주권과 인권은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국가 권력의 언론 자유 제한에 맞서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 권력의 부당한 영향을 물리치고 얻은 점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과 밀접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에 회의를 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 자유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글은 미국의 언론 자유의 역사와 전개과정이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 배경이 되는 영국의 언론 자유 사상사와 더불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현실에 던지는 함의를 탐구할 것이다.

II.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형성 배경

1. 영국의 언론 자유 사상의 영향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형성 배경은 영국을 포함해 유럽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주한 사람들이 영국 등 유럽 출신이기 때문이다.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을 전후로 하여 세계의 변화를 이끈 요인으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을 비롯해 가톨릭 권력의 쇠퇴, 과학의 등장, 세속 국가의 등장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Altchull, 1990, 67).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측면이 강했다. 먼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서적의 보급과 문자의 해독에 큰 영향을 주면서 지배자들이 읽고 쓰는 능력, 즉 언론 행위가 가능한 시민을 상대함을 의미한다. 다음에 가톨릭 권력의 쇠퇴 과정에서 인쇄물의 역할이 컸다. 또한 과학 정보의 발달은 기존의 사고와 다른 주장을 제기

하며 토론과 반론을 활성화시키는 점에서 언론 자유의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세속 국가의 등장은 권력의 변동을 의미하고, 새로운 권력이 자신의 입장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주목받았다. 그러면 17세기 영국사회에서 일어난 언론 자유의 사상을 당시 주요 사상가인 밀턴을 비롯해 홉스, 로크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2. 밀턴의 언론 자유 사상

밀턴의 언론 자유 사상은 오늘날 미국 언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인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그의 언론 자유 사상을 요약하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의 자동 조정 원리'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게 되면 나쁜 물건을 사라지듯이, 언론 역시 시장처럼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보장하면, 좋은 사상은 채택되고 나쁜 사상은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밀턴이 왜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당시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밀턴이 태어나던 1608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영국에서 개신교의 성장 속에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쇄술이 널리 활용됐다. 하지만 구 지배체제인 보수왕정인 튜더와 스튜어트 왕조 등은 기존 종교에 반대하는 표현을 검열했고, 헨리 8세의 경우 토머스 모어 등을 처형하면서 탄압의 강도가 심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86년 성청(the Court of Star Chamber, 건물의 천정에 별이 그려져 붙인 이름)을 통해 교회를 비판하는 인쇄물과 이를 제작한 인쇄기를 불태우고 부수는 기구를 설립, 1637년 규칙이 수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출판의 자유를 억압했고, 그 피해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밀턴(1608-1674) 생존 시기 영국은 격변기였다. 찰스 1세의 즉위(1625), 의회군과 왕정파의 1차 내란(1642-1646)과 2차 내란(1648), 찰스 1세의 처형(1649), 공화정(1649-1659), 왕정복귀로 찰스 2세 즉위(1660) 등이 잇달아 일어났듯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저항이 컸다. 밀턴은 부친의 영향으로 청교도를 신봉했고, 청교도 혁명과 크롬웰의 공화제에 참여했다. 그의 대표작인 『실락원』

(*Paradise Lost*, 1667)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보았는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아레오파지티카 : 허가받지 않고 인쇄할 자유를 위해 영국 의회에 보내는 존 밀턴의 글』¹⁾을 남겼다. 이 작품은 밀턴 생존시 큰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1728년 식민지 상태의 미국에서 일어난 검열과 관련된 쟁거(John Peter Zenger)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출판되어 검열제도의 종식과 표현의 자유 확보 차원에 큰 주목을 끌었다(알철 72-75).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아레오파지티카』의 발표 동기는 밀턴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혼을 지지하는 두 편의 팜플릿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만(알철 82. 및 홍사중, 126) 당시 국교에 대한 청교도의 종교적 자유 쟁취 투쟁과 1643년 들어 격화된 장로교대 독립조합 파의 대립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정부와 의회의 종교문제 간섭을 배경으로 했다.

아레오파지티카를 통해 밀턴(1644)은 검열이 나쁘고, 필요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를 통해 진리를 구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먼저 검열은 책 속에 담겨있는 인간 지성을 위협하고,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를 죽이는 살인이다. 또한 검열관은 책을 소화하는 독자보다 소양이 낮을 경우 검열은 학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다음에 언론의 자유는 국가와 공중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홍사덕 127-128). 따라서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쉽게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듯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주장의 대립을 거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밀턴의 주장으로부터 찾아보면 먼저 교회의 검열 위협에 대해 어리석고 자기파괴적으로 규정하고, 악 없이 선이 없듯이 “악의 모든 유혹과 악이 제시하는 즐거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절제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또 진실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1) 『아레오파지티카』는 아테네의 최고재판소가 있었던 아레오파구스(Areopagus)라는 언덕에서 따온 말로 아테네 최고의 정치·사법부인 아레오파구스에서의 연설을 의미하는데, 제우스신의 아들로 전쟁의 신인 아레스(Ares)가 자기 딸을 겁탈한 사촌형제를 죽인 뒤 재판을 받고 무죄로 판명됐다. Alchull, 1990, 79 및 홍사중, 1982, 127.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다”(John Milton, 1644. Altchull, 1990, p. 80에서 재인용)고 말한다.

그는 검열의 해악에 대해 책은 인간의 지성을 담아 생명력이 있으므로 “따라서 까딱하면 좋은 책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아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성 있는 살아있는 것, 신의 이미지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책을 죽이는 것은 이성 자신, 곧 인간의 마음에 직접 반영된 신의 이미지를 죽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산서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여하한 박해에 대하여도, 또 책 속에 보존되고 축적된 인간의 저 불멸의 생명에 대한 여하한 파손에 대하여도 우리는 충분히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일종의 살인이며, 때로는 순교자 박해의 죄를 저지를 지도 모르며, 또 이것이 인쇄물 전체에 퍼진다면 일종의 대학살죄를 저지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John Milton, 1644. 홍사중, 1982, 130에서 재인용).

밀턴은 검열이 무의미한 것은 책을 읽는 개인의 양식과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은 “서적이란 음식과 같아서 어느 것은 좋은 알맹이, 어느 것은 나쁜 알맹이를 갖고 있다. … 좋은 고기라도 위가 나쁘면 나쁜 고기와 아무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사악한 마음에는 악을 만들어내는 씨가 되기도 한다. 나쁜 고기는 아무리 건전한 소화력을 가지고서도 영양이 되지는 않는다. 이 점이 나쁜 책과 다른 것이며, 나쁜 책은 사려분별이 있는 독자에게는 여러 점에 있어서 발견하고 논파하고 미리 경계하고 예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신이 인간의 음식의 범위를 절제의 규율에 어긋나지 않은 한 자유로운 것으로 넓혔을 때 정신의 음식과 섭식도 자유롭게 만든 것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하여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능력을 스스로 이끌고 써 나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John Milton, 1644. 홍사중, 1982, 133에서 재인용)란 내용에서 볼 수 있다.

밀턴은 “책에 대하여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검열관)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열심이며 학식이 있고 사려분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허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검열할 때 대단한

과실을 저지를 지도 모르며, 그것은 또 엄청난 해를 끼칠 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나(저자)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의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검열관의 선임을 그르치는 일이 있는 것은 검열관이 저자를 잘못보고 그 내용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확률이 같다.”(John Milton, 1644. 홍사중, 1982, p.132에서 재인용)는 지적은 무능한 검열관의 검열 행위는 학문의 권위와 존엄에 대한 모욕과 경멸이기 때문이다.

밀턴의 사상 중 다양한 주장이 진리를 찾도록 한다는 내용은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악에 대한 지식과 조사는 인간의 미덕을 구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고 진리의 확인에는 잘못의 탐지가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소책자를 읽고 모든 종류의 이유를 듣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덜 위험스럽게 죄악과 거짓의 영역을 탐색할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읽은 책이 가져다주는 이득이다.”(John Milton, 1644. Altchull, 1990, p. 80에서 재인용)에서 잘 나타난다.

밀턴 사상의 핵심은 자유 언론에 의한 진리의 자동 조정 기능이다. “모든 주의와 주장을 이 땅 위에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진리도 거기에 있을 터인데, 허가를 받게하고 금령으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진리와 거짓이 서로 다투게 하라. 어느 누가 자유롭고 개방된 대결에서 진리가 패배하리라고 본단 말인가?”(John Milton, 1644. Altchull, 1990, p. 82에서 재인용)란 표현은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로 이어진다.

3. 홉스의 언론 자유 사상

홉스(1588-1679)의 언론사상은 그가 언어와 자유 그리고 국가에 대해 기술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홉스는 언론 자유 사상은 국가 내 이성적 활동으로 요약되는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부를 늘리는 절대주의 개념이고, 이성은 자본주의 초기 부르조아 개인의 등장 과정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절감하되 『리바이어던』에서 접근하듯이 국가와 개인의 모순적 측면을 이성적 계약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가를 위한 이성적 표현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홉스의 생애는 자연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의 성숙, 종교 전쟁, 30년전쟁(1618-48) 같은 처참한 신구간의 종교대립을 지양하는 자연신론의 대두 상황에서 전개됐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의 절대주의 전성기로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 이후 세계무역시장 진출과 미국 신대륙, 호주 등에 식민지 형성을 통해 대영제국으로 가는 상황이었다. 한편 왕권신수설과 독재정치에 맞서 청교도혁명과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은 절대왕정을 뒤로 하고 후기 중상주의를 펼쳤다.

홉스는 런던 교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옥스퍼드 졸업 후, 유럽여행을 통해 전문을 넓혔고, 청교도 혁명 당시 프랑스에 망명했다가 1651년 크롬웰의 등장 이후 귀국했다. 그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인간과 국가를 보았는데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아무것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여 이리'라는 상황에서 자기보존을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인 주권자에게 전권을 양도, 복종할 것을 주장했는데 『리바이어던』에서 전제 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수평파가 지지했던 인민주권론과 대립되지만 봉건적 회귀 차원이 아니라 부르조아 상층과 귀족의 부르조아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언론 자유 사상을 '교회 및 시민의 공동체의 내용·형태·권력'이라는 부제의 『리바이어던』을 통해 보면 먼저 언어를 인류의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발명으로 평가하고, 사고의 기록과 전파를 통해 인간이 짐승과 달리 국가, 사회, 계약, 평화 등을 가질 수 있게 했고, 하여 짐승의 세계와 다르게 했다고 말한다. 언어는 효용과 악용을 각각 지니고, 효용은 다시 일반 효용과 특수 효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효용은 사고 결과의 기록과 대중간의 상호전파, 특수 효용은 현재 또는 과거 사물의 원인과 결과 기록, 획득한 지식의 전달/ 상호의논 /교수, 상호부조를 위한 의지나 목적의 상호전달, 언어의 오락기능 등 네 가지이고, 악용에는 사고의 오기와 그로 인한 자신의 기만, 언어의 비유적 사용으로 인한 타인의 기만, 비의지의 의지 표현, 상호음해를 위한 언어사용 등 네 가지가 각각 해당된다(홉스

151-163). 이러한 언어관은 현대 학계에서 언론의 기능을 보도, 지도, 오락, 광고로 분류하는 시각과 유사하다.

홉스의 자유 개념은 외부적 방해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 안에서, 그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자유이다.”(홉스, 228)라는 표현처럼 이성적 계약으로 성립한 국가 내에 있다. 여기서 홉스의 국가는 “많은 다수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자로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홉스, 257)이다.

4. 로크의 언론 자유 사상

로크(1632-1704)의 언론 자유 사상은 『통치론』에 잘 나타나는데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공동사회의 구속 가능, 물질적 재산의 자유 등으로 요약된다. 즉 누구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되, 침해를 막고 안전하기 위해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고, 노동을 통해 형성된 사유재산의 안전성 차원에서 국가의 구속을 인정한다. 이러한 언론 자유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흥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자유의 제한 주체는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정부지만 목적과 다를 경우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민주주의의 저항권이 뒷받침된 자유와 제한의 관계를 포함한다.

로크의 활동 시기에 영국은 청교도혁명으로 인한 절대군주제의 붕괴와 공화제의 성립, 입헌 군주제로 급변했다. 내란후 크롬웰의 공화제가 군사적 독재로 진행되자 시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찰스 2세(재위:1660-65)의 왕정 복고, 제임스 II세(재위:1679-88)의 가톨릭 옹호와 군주권의 절대성 주장에 따른 의회와의 대립과 명예혁명, 윌리엄 3세(재위:1689-1712) 시절 의회의 승낙 없이 법률의 정지와 관세를 금하고, 국민의 국왕에 대한 청원권, 자유로운 의원 선거와 의회 내에서 의원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권리장전(1689)의 공포(公布) 등을 경험했다.

로크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 후 정치활동에 참여했고, 1683년 네덜란드에 망

명했고, 1688년 명예혁명 직후 귀국하여, 윌리엄 3세 정부에 참여했다. 로크의 『통치론』(또는 정치론 이편)은 권리장전에서 나타난 의회의 우위성을 주장했는데 가부장권적 왕권신수설 비판, 인간의 자연권과 계약에 의한 국가 성립, 정부의 국민 권력 수탁, 있는데 불과하며, 국민의 최고 권력 보유와 정부 위탁 위배 시 저항권 보유 등을 논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소유를 낳는다는 노동가치설과 다수 결 원리, 권력 분립 이론 등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주요한 요소를 정리했다. 로크는 국가 이전의 자연적 인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개의 특질을 갖고 있음에 주목한다. 먼저 자연 상태의 인간의 자유는 자연법이 설정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의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대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른 사람의 허가를 얻는다는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다는든가 하는 일이 없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다. (로크, 33)

다음에 여기서 모든 개인은 능력상의 평등이 아닌 권리상의 평등을 갖는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곳에서는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은 상호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다. 즉,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종류와 등급의 피조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두 똑같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똑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일체의 피조물의 주이시며 지배자이신 신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시어 그에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지배권과 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

게 종속 또는 복종되는 일이 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다.(로크, 33)

이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고 구속받는 유일한 길은 재산의 안전한 향유와 외침으로부터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동의 형성에 동의할 때로 다수결에 의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그리고 그 공동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려는 데 있다. ...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수파가 그 이외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로크, 100)

또한 로크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법적 역할을 강조한다. 법은 자연 상태의 결합인 분쟁 판정 기준(법률)의 부재, 권위있는 공평한 법관의 부재, 판결의 지원과 집행 권력(강제집행권)의 결여 등에 다른 것이다(로크, 120-121). 이러한 법률, 법관, 강제 집행권 등의 확보는 자유를 포기하고 새로운 자유를 보장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가입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평등과 자유 및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사회의 수중에 위임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은 사회의 공공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부에 의해서 처치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다 더 잘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뿐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면 누구도 현재의 상태보다도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자기의 처지를 변경시키리라고는 좀처럼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권력, 즉 그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서 설정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공의 복지라는 범위를 일탈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될 수 없다. 그것은 자연 상태를 매우 위협스럽고 불안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결함에 대비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재산(생명·자유·자산)을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입법권, 즉 국가의 최고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확립된 영구적인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할 것이며, 결코 그때그때의 즉석에서의 법령에 의해서 통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공정무사의 재판관을 가져야 하며, 재판관들은 이 법률에 따라서 분쟁을 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동 사회의 힘은, 국내에 있어서는 단지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외적으로부터의 가해의 방지나 그 피해 보상이나 또는 침략과 침해로부터의 수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체의 것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로크, 132)

이처럼 로크의 자유와 자연권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만 이의 안정적 향유를 위해 동의를 거쳐 공동사회에 자유와 평등을 구속시킨다. 로크의 공동사회는 자유평등의 개인주의에 바탕한 다수결의 국민에서 비롯되고, 저항권을 보유하므로 국가는 선정을 해야 한다.²⁾

5. 근대 영국 언론 자유 사상의 특징

근대 영국의 언론 자유 사상을 밀턴, 홉스, 로크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밀턴의 '사상의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의 자동 조정 원리'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언론 자유의 제한 법률에 대한 입법 금지에 영향을 주었다. 밀턴의 주장이 가톨릭 중심의 사회에서 청교도 정신의 확산을 추구하면서 신의 정신이

2) 로크는 의회제도를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활동해야 하는 국가의 가장 우수한 체제로 보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 '다수'는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르주아와 귀족을 가르키지만 현대에 와서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담긴 인간의 저작물을 검열로 탄압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는 주장은 기독교적 논리를 언론 자유에 적용했다. 또한 자본주의 초기 시장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여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가 결정하여 취사선택하고, 독자는 책의 선악을 구분하므로 선을 택하도록 악의 존재를 막지 말 것을 주장한 것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 거래의 자유를 언론에서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다.

홉스는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이성적 계약에 의해 성립한 국가가 평화와 공동방위 목적으로 행하는 제한을 인정한다. 홉스의 언론 자유는 제한의 관점에서 역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자연권, 즉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이성적으로 계약하여 출범시키고, 제한 권함을 부여했듯이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지켜야 한다. 평화와 공동방위다. 이런 목적을 지닌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크는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사회의 다수결에 따른 구속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다시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의 변증법적 관계를 보여준다. 로크의 언론 자유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하다. 이때 자유를 제한하는 주체는 국민의 다수결에 구성된 정부에 의해서다. 그러나 정부의 자유 제한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는 법률, 법관, 강제집행권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시민의 저항권이 언제나 지 우위에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대 영국의 언론 자유 사상은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기됐다는 점이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강조와 무질서 상태의 우려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제한 가능성과 범위,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위한 자유의 제한과 방식, 그리고 한계 등은 왕정으로부터 공화정, 다시 왕정 복고와 점진적인 부르조아지 세력의 확대 과정이란 경험에 의해 형성됐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밀턴의 사상은 수정헌법 제1조의 근거가 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홉스와 로크가 자유를 위한 제한의 논리를 전개했듯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긴급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나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내용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한 포르노 이용의 제한과 같은 경우다. 로크의 경우 재산권의 자유

즉 소유권적 자유 개념이 강한 것 역시 부르조아지의 재산이 자유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권의 자유는 특히 미국 언론 사상에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 소유자의 자유 개념이란 인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Ⅲ.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형성과 내용

1. 근대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형성

미국의 건설자들은 유럽의 왕정과 귀족 중심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했다. 미국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왕정과 귀족이 대표했던 국가를 강조하는 대신 일반 시민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제도는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언론의 자유 사상이 발달하고, 제도로 정착된 과정 역시 신대륙에서 미국의 정치적 독립과 자본주의 발달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에서 언론 자유 사상 형성과 관련해 살펴볼 건국 초기의 정치언론인³⁾과 주요 사건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해 쟁거 사건과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제퍼슨 등이 있다. 먼저 벤자민 프랭클린의 청년 시절 미국의 보스턴은 식민지 상태에서 청교도 신봉자들이 거주하면서 영국의 식민지 권력과 가톨릭 권력에 대립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형인 제임스 프랭클린은 1721년 발행된 『뉴 잉글랜드 쿠란트』의 인쇄인으로 가톨릭 세력가인 매터(Mather) 가문을 공격했고, 성직자의 신문 폐간 위협에 대해 권력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이라도 자유로이 공포할 권리의 보증을 내세웠다(Altchull, 1990, 202-203). 제임스 프랭클린은 『쿠란트』의 지면에서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공포했다는 이유로 인쇄인을 저주하는 것은 사악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반박했으나 감옥에 수감된 후, 로드 아일랜드로 망명했다(Altchull, 1990, 203). 벤자민 프랭클린은 형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언론의 자유 주장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1729년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를 창간하

3) 정치와 언론 활동에 함께 종사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면서 보다 간접적인 방안을 택하게 된다. 그는 1731년 6월 10일자 『펜실베이니아 가제트』지에 발표된 ‘언론인을 위한 변명’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 공중에게 양쪽 의견 모두를 들을 기회를 주면 진리는 언제나 거짓에 대해 승리한다고 주장하는데서 밀턴의 자동조정원리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Altchull, 1990, 206에서 재인용).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1737년 11월 『가제트 필라델피아』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 정부의 주요 기둥으로 언론의 자유가 박탈될 때, 자유사회의 건설은 붕괴되고, 그 폐허위에 독재자가 세워진다.”면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Franklin, 1737). 그는 이어서 언론의 목적은 진리 증진으로 허위의 공표자는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권력이 처벌할 경우 나무의 무성한 가지를 쳐낸다는 이유로 나무를 죽이는 행위이고, 그러한 정부 권력은 자유의 적이라고 비판한다(Franklin, 1737).

다음에 쟁거 사건은 뉴욕의 인쇄업자로서 언론인에 해당되는 존 피터 쟁거(John Peter Zenger)가 선동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무죄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를 맡았던 필라델피아의 변호사 앤드류 해밀턴의 주장에서 언론의 자유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앤드류 해밀턴은 미국 언론인(인쇄인)이 권력의 폭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사회의 중요한 목표이자 자유의 목적, 최선의 목적이라고 쟁거의 석방은 억압정치를 좌절시키고, 인위적 권력의 폭로와 비난 권리를 모든 미국인에 보장해 주는 판결이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고, 면소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실한 의견이 면책이라는 판례로 정립됐다(Altchull, 1990, 212-214).

이어서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의 핵심적 초안자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언론 자유 사상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Altchull, 1990, 217). 매디슨은 미국에서 공화제를 형성하는데 주력하면서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에 의한 배제가 일어남을 우려하면서 프랑스의 법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제창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용했고, 언론의 자유가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파벌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았다(Altchull, 1990, 217-218). 언론 자유의 사상은 미국 헌법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권리장전에 포함되어 수정헌법 제1조란 이름으로 채택됐다. 매디슨은 1791년 경 미국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여론이고,

시민을 보호하는 신문이 여론을 대변하고, 모든 선량한 시민은 국민의 권리를 감시하는 파수로서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표현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다(Altchull, 1990, 219).

이어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1778년 한 편지에서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직 은퇴 후인 1810년에는 한 신문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언론인의 실정법 준수가 선량한 시민의 고귀한 의무이지만 그 보다 높은 의무는 필연의 법칙, 자기보전의 법칙,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법칙이라면서 언론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시사했다(Altchull, 1990, 219). 이러한 주장은 언론과 관련해 실정법보다 양심에 근거한 자연법의 우위로 이어지는데, 자연법에 의해 취재 정보의 제공자를 밝히지 않아 실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현실의 비판 근거가 된다(Altchull, 1990, 226). 그리고 제퍼슨의 언론 사상은 “...진리는 위대하고 그 자체에 맡겨두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진리는 오류에 대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적수이며, 인간의 간섭이 진리의 자연적 무기인 자유로운 주장과 토론을 무장해제 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에서 두려워할 아무 것도 없고, 진리와 오류가 서로 자유로이 반박하도록 허용될 때 오류는 더 이상 위험한 것이 못된다.”(Altchull, 1990, 219)고 말했듯이 자동조정위원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과 언론의 자유

1791년 12월 15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비준된 수정헌법 1조 “의회는 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입법권 부정과 주별 허용, 사전 제한 불가의 허용으로 검열은 가능, 언론 자유 영역의 확대, 절대적 자유의 보장 선언 등 네 가지로 설명된다(Altchull, 1990, 233-235).

첫째, 의회의 입법권 보장과 주별 허용 주장은 시민의 권력자 비판을 국가의 입법부가 처벌할 수는 없지만 연방의 허용 내용이 주별로 다를 수 있다는 논리다(Altchull, 1990, 233).

둘째, 사전 제한은 불가하되 인쇄 후 검열은 가능하다는 주장은 윌리엄 블랙스톤 경(Sir William Blackstone)이 영국 관습법을 적용한 것으로 자유 언론을 보장하되 위법 행위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안 채택 당시에는 누구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Altchull, 1990, 234).

셋째, 언론 자유 영역의 확대 주장은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가 1919년 선언했던 내용처럼 언론의 자유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Altchull, 1990, 234-235).

넷째, 절대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임스 매디슨과 같이 모든 형태의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내용으로 책임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Altchull, 1990, 235).

이처럼 네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언론 자유의 내용과 한계가 달라짐을 말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현재적 공격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은 언론 자유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798년 미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프랑스 이민의 힘을 강화시켜 내부 전복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했고, 국가안보 수호를 내세우며 외국인법과 치안방해법을 통과시켰다(Altchull, 1990, 236-237). 외국인법은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에 위협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인 중에서 특히 작가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치안방해법은 미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반하여 외국을 고무시키는 허위의 글들을 처벌하도록 했다(Altchull, 1990, 237).

하지만 제퍼슨은 대통령 취임 후인 1801년 두 법에 의해 구금된 모든 죄수들을 사면했다(Altchull, 1990, 237). 또한 매디슨은 두 법이 위헌적이고 파괴적인 이유로 유일하게 다른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 자유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표현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언론인에게 영향을 준다(Altchull, 1990, 237-238). 매디슨은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이 사전(事前)에만 보장되고 사후(事後)에는 처벌로 이어질 경우 언론을 위축, 무력화시켜 공중에 대한 봉사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하고, “실책과 억압을 극복하고 이성과

인간성이 획득한 그 모든 승리에 대하여, 세계는 남용으로 얼룩져 있는 바로 지금의 언론에 빗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심지어 언론자유의 남용조차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Altchull, 1990, 239-240). 매디슨은 언론 자유의 절대성을 선언했고, 사회를 감시할 파수견의 원칙을 주장했고, 공중의 알 권리 개념을 맹아적으로 제시했고, 언론의 교육적 역할도 완곡하게 언급했다(Altchull, 1990, 240).

언론 자유를 조심스럽게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시각은 알레산더 해밀턴이 1804년 해리 크로스웰(Harry Crosswell)이 뉴욕에서 발행한 『와습』(Wasp)에서 제퍼슨을 공격한데 따라서 선동적 명예훼손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재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밀턴은 크로스웰의 제퍼슨 비판은 언론의 남용과 중상비방이 아니라 진실성에 기반하여 권력의 침해를 경계한 것으로 존 밀턴의 사상을 따르지만 고의성 있는 범죄와 미국인이 존경하는 제도 그 자체를 해칠 수 있는 잘못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ltchull, 1990, 243-245). 즉 해밀턴은 언론이 선의의 동기로서 정부나 개인의 잘못을 진실에 바탕하여 공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제한받지 않는 언론에 의한 중상비방은 미국의 역병이 될 것이라고 본다(Altchull, 1990, 245에서 재인용).

미국에서 언론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으로 다른 개인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데,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이른바 ‘숨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거츠 대 웰츠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견에 있어 잘못된 -오류가 있는- 언사란 없으며 비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직자와 사회적 공인에 대해 비판할 자유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다(Smolka, 2000; Carter et al, 1994; Gillmor, Baron, Simon, & Terry, 1996; 376 U.S. 1964; 418 U.S. 323 1974; 이상 이재진, 2009에서 재인용).

3. 미국 사회의 변화와 언론의 자유

미국은 건국 이후 드넓은 서부를 향해 영토를 확장하고, 개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미국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언론 자유 사상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 조정, 보완되는 과정을 겪는다. 알철(1990)은 19세기 이후 미국 언론 사상에서 자리를 잡은 다섯 가지 요소로 낙관주의, 실용주의, 탐사언론, 언론 권력, 회의주의 등을 제시한다(Altchull, 1990, 346). 첫째, 낙관주의는 기회의 땅 미국에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지리적 팽창과 인종적 이민의 수용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 현상에서 언론인들이 갖게 됐다. 남북전쟁 이전까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낙관주의는 미국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됐으므로 언론은 미국의 발전상을 찬양했고, 언론 역시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주력했다. 신문의 역할은 시민의 교육과 정보의 제공 등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고민했고 후자는 선정적 뉴스로 오락적 역할에 치중했는데 태평성대 상황에서 후자의 사업적 성공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자유 사상은 크게 조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 자유를 선정적 보도로 보여주고, 성공한 사람과 기업을 칭찬하지만 소외된 자를 외면한 보도가 적절한 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실용주의는 미국 사회에서 이론보다는 실재를 지향하는 경향을 반영하는데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에 의하면 고정된 원칙과 폐쇄체계 그리고 가장된 절대와 기원에 근거를 둔 모든 추상과 현실을 거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체적인 것에 전념하며 행동과 힘을 지향한다(Altchull, 1990, 412-419). 듀이의 도구주의와 제임스의 실용주의 모두 사고를 포기하고 행동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북전쟁은 노예제 철폐에서 보듯이 미국 사회의 개혁을 의미했고, 후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공유하는 정신으로 계승됐는데 언론은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도구적 성격을 지녔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갖춘 공중의 의사 결정에 의존하므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미국의 성장이 탐욕으로 변질되면서 보통사람들의 과실이 사라지는 빈부 격차 상황이 전개되면서 언론 자유 사상은 미국의 꿈을 배신한 산업가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셋째, 탐사언론은 미국 사회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관련된다. 즉 언론은 한편으로 황색언론 현상과 사회적 부정부패의 매개물 역할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 부패하거나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균형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시대 비판의 전통을 이어받은 추문 폭로 활동을 현대에 와서는 엄밀한 취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기하는 탐사보도로 나타났다(Altchull, 1990, 485-537). 언론 자유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상황을 비이성적으로 이끌어가는 황색언론 현상이다. 폭로언론인들은 정치인과 경제인의 부정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개혁 운동을 고취하기도 했고, 허친스위원회로부터 언론 자유를 부여받고서 무의미하고, 천편일률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오해를 영속화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데 부응하여 탐사언론으로 출구를 찾았다(Altchull, 1990, 499-537).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언론이 기업의 성장에 따른 독과점 폐해에 대해 폭로 저널리즘을 보이고 신문 기업의 성장을 위한 광고 확대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언론이 자본가와 정치인에 의해 비밀리에 소유되어 기업과 정치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를 기사와 구분되지 않도록 게재하고,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높은 광고수입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Lawson, 1993; 채백, 2001). 그러자 연방 의회와 정부는 신문의 소유주 공개를 비롯해 광고와 기사의 구분 표시, 그리고 발행부수 공개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공개법(1912)의 제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다수 신문은 언론 자유의 억압 논리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대법원은 신문에 대한 우편물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조치라는 규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일부로부터 언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되면서 정착됐다(Lawson, 1993; 채백, 1912).

넷째, 언론 권력은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의 정당성 문제와 더불어 그러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신문의 성장과 텔레비전의 편재성 시대를 겪으면서 언론인이 뉴스를 통해 대중의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언론 권력은 낫설지 않은 개념이 되었다. 특히 “『월드』지는 대통령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파성과 정치라는 족쇄에

구속되어 있고, 단지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Altchull, 1990, 542)고 풀리처가 말한 것은 미국 사회에서 언론의 힘이 커진데서 나왔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의 권력 행사가 갈브레이드의 지적처럼 조작력과 설득력을 통해 조건화된 권력 행사로서 개인은 자신이 통제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기 힘들다(Altchull, 1990, 542). 언론 자유가 언론 기업에 의해 전유될 때, 언론 독점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지배와 이익 추구로 나타날 가능성 다분함을 보여준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실의 선택과 해석,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그려진 이미지를 전달해 여론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Lippmann, 1922). 또한 언론의 자유가 시민과 언론인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의 자유로 변질됐고, 기업가에 의해 지배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선정주의적 보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커졌다(Siebert et als., 1963). 이런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노동정책은 언론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최저임금보장, 노조결성권 보장 등을 적용하자 언론은 언론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발했다. 그러자 사회적으로 언론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 진부하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공중의 잘못된 현실이해를 영속화한다는 인식과 비판을 형성했고, 이는 1943년 12월 당시 미국 시카고대 총장인 로버트 허친스(Robert M. Hutchins)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과 외국자문위원, 실행위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허친스 언론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Freedom of the Press, 이하 보고서 내용은 CFP, 1947로 표기)를 출범시켜 연구를 진행했고, 이들은 1947년 3월 보고서를 제출했다(장호순, 2001). 허친스 위원회의 활동 배경은 미국 언론의 소유집중, 독점화와 정치활동이 극심한데 대해 거부감이 형성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파시즘 정권의 출범이 자유주의에 따른 합의 창출이 어려워질 경우 정쟁 불안으로 독재자를 초래했고, 뉴스와 사실이 오락성과 이미지에 압도당했고, 영리를 추구하는 미디어가 문화 수준을 하락시켰다는 인식의 확산 등이다. 허친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필수 사항으로 해석하고 권리이자 의무로 보았는데, 언론자유 본질을 정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 자유(freedom from)와 다양한 사상에 접근하기 위한 자유(freedom for)를 모

두 포괄하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수용했다(CFP, 1947). 즉 자유는 행동 범위의 제한이 없고, 그러한 행동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는 것으로 시민의 액세스권이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측면에서 강조됐다. 위원회는 미국의 전통적 언론 자유 개념이 자유주의(liberalism)에 대한 과도한 열정에 근거했고, 이성적 인간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고, 외부의 개입보다는 언론사의 자율적 제한이 필요하고, 미디어가 정보와 토론의 전달자로서 책임성 있는 자유(accountable freedom)라는 도덕적 의무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CFP, 1947).

다섯째, 회의주의는 모든 정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냉정하게 의심하고, 답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고, 검증에 의해서만 진리에 도달하는 언론 현상과 언론인의 자세를 말한다(Altchull, 1990, 611-612). 언론의 파수견 역할에 대한 강조는 감시를 넘어 권력과 사회에 대한 적대적 문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파시대의 등장과 진전에 대해 캐나다인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미디어의 형태가 내용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캐나다인 해롤드 이니스(Harold Inis)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유권자를 통제하여 권력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Altchull, 1990, 611-633). 현대 미국 사회에서 언론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때, 언론의 공공 봉사 기능에 모든 미국 언론인이 동의한다. 따라서 이익 추구적 상업주의 언론은 수정헌법 제1조가 부여한 언론 자유 보장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Altchull, 1990, 654).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 현실은 극심하게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언론의 생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언론 자유의 내용과 한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2001년 9.11 테러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다양한 보안조치와 관련 법을 도입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언론 자유를 크게 악화시켰다. 큰 틀에서 보면 행정부의 권력이 국회 및 법원에 비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붕괴됐고, 개인의 사생활이 축소되고 국가가 시민 개개인의 생활을 감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수집 공유하도록 했다(한중호, 2004). 특히 2001년 10월 26일 서명된 애국법(USA Patriot Act)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며 인권제한 및 프라이버시 침해논쟁을 일으켰다(한중호,

2004). 2002년 11월 법안통과로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위협에 대한 정보를 다른 기관들로부터 수집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므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였다(한종호, 2004). 이에 따라 미국에서 1928년 확립된 프라이버시 권리가 취약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모든 권리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권리다”(Olmstead vs. United States, 277 U.S. 438, 478, 1928. 한종호, 2004에서 재인용)라고 말했는데, 9.11 이후 테러의 위협 감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된 감시, 통제 법안과 부처에 의해 프라이버시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건국 초기의 열린 정부에서 닫힌 정부로 바뀌었고, 이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는 애국법과 국토안보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실종되었다(한종호, 2004). 최근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 언론의 보도는 언론 자유가 아니라 관리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점에서 건국 초기의 언론 자유 사상을 찾기 어렵다.

IV. 결론

1.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특징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은 현실과 이상의 변증법이다. 언론 자유 사상의 이상이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현실은 미국의 환경과 역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미국을 건설한 식민지 이주민들은 유럽에서 출발했다. 영국의 근대 언론 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아울러 프랑스, 독일 등의 사상도 미국 언론 자유 사상에 스며들었다.

근대 영국의 언론 자유 사상가인 밀턴, 홉스, 로크 등의 사상이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밀턴의 ‘사상의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의 자동 조정 원리’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언론 자유의 제한 법률에 대한 입법 금지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언론에 대한 규제와 탄압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청교도 입장에서 가톨릭에 대항했던 밀턴의 주장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됐다. '사상의 자유 시장'과 '시장의 자동 조정 원리'는 특히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확산되면서 유럽식 왕정과 귀족정 중심의 정치체제인 국가 개념을 거부한 미국에서 순조롭게 정착됐다.

홉스는 언론 자유가 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목했다. 인간의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최대한 보장되지만 동물적 상호 투쟁으로 인해 불안정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성적 계약을 거쳐 국가를 출범시키고, 국가에게 자유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듯이 언론 자유 역시 공동체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국가가 어느 정도로 언론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대법관 홉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을 제시해 에서 현실적 차원에서 언론 자유를 최대화하도록 했다.

로크의 언론 자유는 소수를 보호한 다수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다수결로 구성된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약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의 복지에 제한된다. 아울러 최종 권한은 시민이 지니므로 부당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 로크의 언론 자유 사상 역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언론의 독과점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일어날 경우 향후 언론 자유 확보를 위한 저항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언론의 독과점이 여론을 지배하는 질적 차원에서 다수적 입장이라면 현실적 소수의 언론 자유 박탈이 회복돼야 하고, 양적 차원에서 언론 지배 집단이라는 소수적 입장이라면 언론을 향유하는 다수 시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은 미국 내의 역사적 경험과 논쟁을 통해 줄기를 형성하고 가치를 뽐어나갔다. 유럽의 왕정과 귀족정의 억압을 벗어나 신대륙에 도착한 미국의 건설자들은 시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고, 초기 정치인들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해 쟁거 사건과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제퍼슨 등에 의해 구체화됐다. 먼저 벤자민 프랭클린은 언론 활동을 통해 밀턴의 자동조정원리를 설교했고, 권력이 언론을 처벌할 경우 자유의 적이 된다고 비판했다. 쟁거 사건은 뉴욕의 언론인이 권력자를 비판하여 선동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을 때, 권력의

폭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사회의 중요한 목표이자 자유의 목적, 최선의 목적이라는 변호사 앤드류 해밀턴의 주장을 통해 면소 판결을 얻어냈다.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의 핵심적 초안자 제임스 매디슨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용 과정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파벌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장치·과수로 간주하여 수정헌법 제1조로 자리잡도록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밀턴의 사상에 동감하고,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고, 나아가 언론인은 때로 실정법 준수보다 자연법을 통해 필연의 법칙, 자기보전의 법칙,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법칙에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언론 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의회는 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언론 자유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흠즈가 1919년 선언했던 내용처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도 종종 있었다. 1798년 미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프랑스 이민의 힘을 강화시켜 내부 전복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여 통과시킨 외국인법과 치안방해법은 언론 자유 억압에 악용되었고, 제퍼슨은 대통령 취임 후인 1801년 두 법에 의해 구금된 모든 죄수들을 사면하기도 했다. 매디슨도 두 법이 위헌적이고 파괴적인 이유로 유일하게 다른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 자유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여전히 현대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기초를 이룬다. 언론 자유의 한계와 관련해 알렉산더 해밀턴이 말했듯이 언론이 선의의 동기로 정부나 개인의 잘못을 진실에 바탕하여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제한받지 않는 언론에 의한 중상비방은 미국의 역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영향을 주었다.

미국 사회의 성장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변화했다. 알철(1990)은 미국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시대별 주요 사상으로 낙관주의, 실용주의, 탐사보도, 언론권력, 회의주의 등을 제시했다. 미국 독립이후 남북전쟁시기까지 개혁과 성장을 구가하면서 두드러진 낙관주의 속에서 언론 역시 성장과 오락적 상업화 속에서 언론 자유 사상을 돌아볼 여기를 갖지 못했다. 남북전쟁과 노예제

철폐 이후 미국 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 지향 속에서 실용주의 정신이 팽배했고, 언론은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 간주됐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요구받았다. 미국의 성장이 정치인과 경제인의 탐욕으로 변질되면서 언론 자유 사상은 부패한 권력 비판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언론도 부패와 책임감 부재의 비판 대상이 되면서 탐사언론이 주목받았다. 허친스 위원회가 제출한 언론의 4이론에서 미국 언론은 자유 언론이 가져온 부작용과 무책임을 극복하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지향할 것이 담겨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언론의 힘이 강화됐고, 언론 권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됐다. 풀리처는 언론이 대통령보다 막강하다고 말했고, 갈브레이드로부터 조작력과 설득력을 통해 조건화된 권력 행사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허친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간섭 방지 소극적 자유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적극적 자유를 강조했고,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에게 균형 있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감있는 자유를 강조했다. 20세기 후반 이후 언론은 모든 정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냉정하게 의심하고, 답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고, 검증에 의해서만 진리에 도달하는 회의주의의 자세를 취했다. 전파시대의 등장과 진전으로 미디어의 형태가 내용을 압도하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맥루한)와 권력의 미디어 지배 현상(이니스) 등이 지적됐다. 수정헌법 제1조가 부여한 언론 자유 보장의 주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언론인지 아니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인지 돌이켜보아야 될 상황이다. 아울러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감시, 통제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약화되고, 언론은 관리된 상태에 안주하여 언론 자유 사상의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2.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도 영향을 주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언론의 형성과 발달에 미국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단과 독재정권, 시민혁명, 군사정권과 민주화, 소통부족 등의 역동적

변화를 거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사상은 일부 다르다.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이 한국에 던져주는 함의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은 영국 등 유럽의 혁명 사상과 미국이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배경으로 하듯이 투쟁과 승리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런 배경은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을 가장 이상적 개념으로 형성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스스로 쟁취하기보다는 미국 등에 의해 주어졌고, 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효율적 치안 유지에 주된 목적을 두었고, 언론 자유 사상 개념은 약화됐다.

둘째, 일제 식민지 탈피, 한국전쟁과 분단을 거친 국가 형성기 우리 언론의 가치와 목표는 통일과 민족주의를 중시했고, 이에 따라 건국 당시의 체도 형성 과정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 노력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분단 상황은 장기간 민주주의 정착을 지연시키고, 군인의 정치참여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면서 언론 자유 사상에 대한 논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1960년 4.19 시민혁명을 비롯해 1980년 5.18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등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한 독재정권, 군사정권, 권위주의 체제 등에 대한 저항의 승리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서구 언론 자유 사상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서구의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 언론 자유 사상은 서구의 언론 자유 사상의 핵심 요소를 적극 포함했다.

넷째, 미국 언론 현실의 변화 모습은 상당 부분 한국 사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으므로 언론권력이나 회의주의 같은 언론 자유 사상의 요소가 우리나라 언론 자유 사상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 자유가 언론 기업에 의해 전유될 때, 언론 독점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지배와 이익 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언론사에게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언론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 언론인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할 언론 자유를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

다섯째, 1990년대 인터넷이 확산되고, 방송의 다매체 다채널 시대 전환, DMB, IPTV 등의 새로운 영상미디어 확대,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 서구와 우리나라의 동조화 추세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IT 기술

발달에 따라 서구보다 새로운 현상을 먼저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언론 자유 사상 역시 새로운 내용 구성을 요구받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의 한계는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사상가를 비교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언론인과 사상가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는 언론 자유의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논문 접수일 : 2012년 09월 14일
- ▶ 논문 심사일 : 2012년 10월 22일
- ▶ 논문 게재일 : 2012년 11월 17일

초록

미국의 언론 자유 사상 연구

이진로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은 유럽에 뿌리를 둔 이상적 언론 자유 사상과 신대륙의 개척과 미국의 건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직면한 현실적 언론 자유 실천의 변증법이다. 근대 영국의 언론 자유 사상가인 밀턴, 홉스, 로크 등의 사상이 미국 언론 자유 사상의 주요 근간을 이룬다.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제시한 ‘사상의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의 자동 조정 원리’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언론 자유의 제한 법률에 대한 입법 금지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언론에 대한 규제와 탄압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18세기 말 외국인법과 치안방해법의 언론 자유 억압을 비롯해 20세기 탐욕적인 정치인과 경제인의 언론 지배로 부작용과 무책임이 지적됐고, 허친스 위원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 주제어 : 미국 언론, 언론 자유 사상, 수정헌법 제1조, 사회적 책임, 자동조정원리, 아레오파지티카

Abstract

The Formation and Change of Free Expression Ideas in American Journalism

Lee, Jin-Ro

Free expression ideas in American journalism are rooted in European philosophy. Milton's *Areopagitica* provided American press with self-righting principle that truth defeat falsehood in the marketplace of ideas. This idea influenced the U.S. Constitution to guarantee freedom of the press by First Amendment. However, greedy politicians and businessmen deteriorated media. Media owners and yellow journalists also enjoyed the free press ideas for their profit. Free expression was condemned not to disclose the truth about the facts. Hutchins Commission published the report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doctrine should replace press freedom.

□ Key words : American Journalism, Free Expression, First Amendment, Social Responsibility, Self-righting Principle, *Areopagitica*

참고 문헌

- 노명식. 1992.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서울: 민음사.
- 박무성. 1988. 『서양근대사 총론』. 서울: 법문사.
- 박용상. 1982. 『언론의 자유와 공적과업』. 서울: 교보문고.
- 로크, 존. 이극찬 옮김. 1982. 『세계사상전집 13 통치론/자유론』 서울: 삼성출판사.
- 이재진. 2009.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진로. 1998. “컴퓨터 통신 시대 언론 자유의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21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장호순. 2001. “미국의 허친스 위원회.” 『언론개혁』 4호(겨울). 248-263.
- 채 백. 2001. 『미국의 언론 개혁: 1912년의 신문 공개법을 중심으로』. 서울: 한나래.
- 한국철학사전연구회 편. 1989. 『철학대사전』. 서울: 동녘.
- 한종호. 2004. 『빅브라더 아메리카: 9.11 테러와 표현의 자유』. 서울: 나남.
- 홉스, 토마스. 한승조 옮김. 1983. 『리바이어던』. 서울: 삼성출판사.
- 홍사중. 1982. 『영국혁명사상사』. 서울: 전예원.
- Alchull, J. H. 1990. *From Milton To McLuhan*, Longman. 양승목 옮김. 1993. 『현대언론 사상사: 밀턴에서 맥루한까지』. 서울: 나남.
- Carter, T. B., Franklin M. A. & Wright, J. B. 1994.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New York: Foundation Press.
- Franklin B. 1737. “On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Gazette Philadelphia*. November. in Bared Sparks. 1836. *The Works of Benjamin Franklin: Containing Several Political and Historical Tracts*. Vol 2. Boston: Tappan and Whittemore. 289-310.
- Gilmor, D. M., Simon, T. F. & Terry, H. A. 1996.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 St. Paul, MN: West Publishing.
- Lawson, Linda. 1993. *Truth in Publishing: Federal Regulation of the Press's Business Practice, 1880-1920*.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http://xroads.virginia.edu/~Hyper/lippman/contents.html/>

- Milton J. 1644. *Areopagitica*. http://www.dartmouth.edu/~milton/reading_room/areopagitica/
- Siebert, F. S., Peterson T., Schramm, W. 1963. *Four Theories of the Press: The Authoritarian, Libertarian, Social Responsibility and Soviet Communist Concepts of What the Press Should Be and D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molla, R. A. 2000. *Law of Defamation*. New York: West Group.
- The Commission on the Freedom of the Press. 1947.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University of Chicago.
- 김택환 옮김. 2004.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